오픈AI, ‘GPT-4o’ 공개  
  
  
  
  
  
  
  
‘지피티-4오’에게 수학문제를 묻고 있는 에이아이 시연팀의 모습. 대화는 음성과 이미지 입력 등을 통해 이뤄졌다. 오픈에이아이 영상 갈무리챗지피티로 유명한 인공지능 기업 오픈에이아이(오픈AI)가 인간처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새 인공지능(AI) 모델 ‘지피티-4오’(GPT-4o)를 공개했다. 마치 진짜 사람과 말하듯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멀티모달(Multimodal, 다중 모드) 인공지능 모델인데, 무엇보다 속도가 무섭게 빨라졌다.13일(미국 현지시각) 오픈에이아이가 온라인 동영상으로 공개한 새 모델 ‘지피티-4오’는 빠르게 사람의 대답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대답할 뿐 아니라, 감정까지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 오(o)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의미인 ‘옴니(omni)’에서 따 왔다.시연에 나선 오픈에이아이 팀이 “로봇과 관련된 동화를 들려줘”하자 바로 동화를 만들어냈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들려줘”라고 말하자 바로 어조를 바꾸어 낭독했다. 종이에 수학 방정식을 쓴 뒤 카메라로 보여주며 “정답을 말하지 말고 풀이 과정을 도와줘”라고 요구하자 마치 선생님처럼 풀이 방식을 유도했다. “내가 어떤 기분인 것 같아?”라고 물으면 사람의 감정과 얼굴 표정도 인식해 냈다.  
  
  
  
  
  
  
  
13일(미국 현지시각)부터 곧바로 챗지피티(ChatGPT)에 적용된 지피티-4오’(GPT-4o). 챗지피티 화면 갈무리이날 발표를 맡은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피티-4오는 지피티4 레벨의 지능을 더 빨리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피티-4오의 평균 응답 시간은 232밀리초인데 이는 평균 320밀리초로 대답하는 인간과 비슷하다. 지피티-4의 응답시간은 5.4초였다. 오픈에이아이는 지피티-4오를 무료로 공개하지만, 유료 사용자에게 5배 많은 사용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기능은 바로 챗지피티에 적용했으며, 음성 모드는 몇주 내로 챗지피티플러스에서 알파 모드로 제공할 예정이다.오픈에이아이가 음성으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본격화한 챗지피티-4오를 선보이며 구글과의 ‘인공지능 비서’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앞세우고 있는 구글의 ‘개발자컨퍼런스(I/O) 2024’ 행사가 열린다. 오픈에이아이는 구글 행사 전날 새 모델을 깜짝 공개했다.